

2011년 전세계 섬유생산량 4.4% 증가

2011년 세계 섬유생산량은 합성섬유의 경우는 약 5,100만톤, 천연섬유는 약 3,300만톤으로 집계되어 총 8,410만톤으로 2010년과 비교하였을 때 4.4% 이상 증가하였다. 이러한 결과로 보아 1인당 섬유소비량이 평균적으로 12kg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.

천연섬유는 약 6.9%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, 합성섬유와 셀룰로스 섬유가 각각 2.9%와 2.5% 증가하였다.

2011년 3월까지의 면섬유 가격은 \$2.44/lb 또는 \$5.37/kg으로 전례없는 고공 행진을 보여 모든 섬유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며, 일시적인 가격 악화로 인하여 폴리에스터의 수요가 증가하였다. 또한 비스코스 섬유가 오히려 면섬유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, 가격 측면에서는 면섬유보다 비스코스를 더 선호하였다.

합성섬유의 생산량은 5,100만톤을 넘어섰고, 폴리에스터 섬유는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73%를 초과하였다. 단섬유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답보상태를 보인데 반해, 필라멘트사는 산업용, 카펫용이 두 자리수의 성장을 달성하는 등 호전을 보였다. 또한 셀룰로스계 섬유는 비스코스 섬유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인해 오름세를 보였다.

폴리아미드계 섬유의 성장은 상당히 감소하였지만, 2010년과 비교하였을 때 조금 높은 수준을 보였고, 폴리프로필렌과 아크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. 아라미드와 탄소섬유 및 스팽덱스 시장은 앞으로 섬유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.